

## 중구, 4개 기업과 함께 올해 첫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개최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오는 14일 구월동 소재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2층 채용행 사장(남동구 문화로 131)에서 ‘2026년도 제1회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은 항공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와 관련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천 중구와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항공일자리센터가 협업해 운영한다.

행사는 (주)엑스퍼트, (주)프로에스콤, (주)유니에스 (주)만파워코리아 총 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현장 면접을 통해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원, 공항라운지 미화원, 지상조업(하기·탑재), 기내식, 기내용품 세팅, 푸드코트 조리·세척 등의 업무 분야에서 약 112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구인기업-구직자 간 현장 면접 외에도, 구직자 대상 1:1 취업 진로상담 등을 운영해 원활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항공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이력서를 침착해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2026년 첫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항공산업 분야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남동구,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남동구는 꽤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옥상 방수 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재난 관리 시설 보수(위험 담당, 응벽, 육상 기와 등),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30~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이 필요한 단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구청 공동주택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 등을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서류 작성 및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업체’ 및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 업체록’을 제공한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종사자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 미술평론가 이주현 초청 ‘행복한 그림이야기’ 강좌 운영

### 명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시민 대상 미술인문학 강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도서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미술평론가 이주현을 초청해 ‘아트 스토리텔러-이주현이 들려주는 행복한 그림이야기’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인천도서관 2026년 상반기 미술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명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시민들이 미술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술 감상을 통해 삶의 행복과 창의성, 인문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대중 강좌다.

강연을 맡은 이주현 평론가는 제12회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로, EBS 「이주현의 미술기행」과 「청소년 미술감성」 등을 진행하며 미술 대중화에 기여해 온 국내 대표 미술 해설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강좌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시간인 행복한 명화 감상을 시작으로,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그리스 신화와 미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매주 차례로 다뤄진다.

강의는 2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인천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032-440-

6665)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미 시 인천도서관장은 “이번 강좌는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시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며 “이야기로 만나는 명화를 통해 시민들이 미술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새롭게 발견해 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립박물관 분관 한국이민사 박물관은 특별전 「상하이 영화 황금시대의 조선 영화인들」과 연계해 「상하이 올드 데이즈」의 저자 박규원 작가를 초청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망명해 1930년대 상하이 영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조선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다룬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상하이 올드 데이즈 작가에게 듣는 김염」이다.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지원 만족도 ‘전국 1위’ 쾌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래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은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 환경 지원, 인력 채용 관리와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인천 시교육청 전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이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과제를 발굴·개입·치료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김을 실현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전국 1위 달성을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또래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상 고우기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 및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의 특강과 8명의 전문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연수 후 양성된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을 개선시키고 위기 징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을 위해 보편적 예방교육과 발굴·개입·치료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부평구-한국철도공사,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개통

부평구는 백운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가 완료돼 정식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역주민의 이동편의 향상과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에스컬레이터 개통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은 이날 백운역을 방문해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안전 등을 살폈다.

백운역 2번 출구는 최근 주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이용

객이 급증했지만,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4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11억 6천만원을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신설 ▲엘리베이터 교체 및 계단 개량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백운역 에스컬레이터는 지역 주민의 간결한 요구가 반영된 성과”라며 “부평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통시설 정비 및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26학년도 옹진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학년도 옹진군농업대학(생활농업학과) 신입생을 오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옹진군농업대학은 창의와 혁신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개설됐다. 현재까지 총 4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장 적용형 기술교육과 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2026학년도 과정은 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격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전체 교육 시간의 75%(3/4) 이상 출석 시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 과정은 ▲텃밭채소·고구마·고

## 강화군, 미래 농업 이끌 청년 후계농 13명 선발

이

최종 선정됐다. 선발 과정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의지와 경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블리언드 면접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면접 평가는 농업·경영 분야 외부 전문가로만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올해 강화군의 선발 인원은 인천광역시 전체 청년 후계농 선발 인원 18명 가운데 약 72%를 차지해, 강화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선정된 청년 후계농 13명은 식량작물, 채소, 축산 등 다양한 영농 유형으로 구성됐으며, 벼·쌀보리·콩·순무 등 강화군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년 후계농 육성은 강화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수원특별시의회 신청사 개청

수원특별시의회  
SUWON SPECIAL CITY COUNCIL